

대구역사탐방대, 대구지역 순국선열의 흔적을 찾아

☎ 서삼봉 기자 | Ⓞ 승인 2020.11.17 07:22

박선생창의역사교실, '어린이 대구역사탐방대' 대구지역 순국선열 유적지 찾아 나서
국립신암선열공원과 조양회관 (광복회) 찾아 순국선열의 의미 되새겨



제 81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이하여 '대구역사탐방대'회원들이 15일 국립신암선열공원 '단충사'에서 52위의 독립유공자들에게 참배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서삼봉 기자

[대구=뉴스프리존] 서삼봉 기자 = 17일(화) '순국선열의 날을 앞둔 지난 15일 대구지역의 순국선열 유적지를 찾아 나선 '어린이 대구역사탐방대'(주관:박선생창의역사교실 달서지사)를 동행 취재했다.

오전 9시, 대구시 달서구 도원구립 도서관 앞에 정차한 33인승 버스 두 대 주위에 주황색 가방을 맨 어린이들이 몰려들었다. 미리 와 있던 박선생창의역사교실 달서지사 10명의 선생님들이

순차적으로 아이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답사책자를 나눠준다. 버스 내 한자리 비워두기로 방역지침을 준수한 후 첫 번째 장소로 출발했다.

첫 도착지는 '국립신암선열공원'이다. 2018년 7번째 국립묘지로 지정된 이 곳은 대한민국 최대의 독립유공자 집단묘역이다.

국립신암선열공원(소장 우연식)은 대구시 동구 신암동 산27-1번지에 36,800m²의 규모로 조성되어 있다. 국내 제1호 독립운동가 전용 국립묘지로, 독립유공자 52분(건국훈장 독립장 1명, 애국장 11명, 애족장 32명, 대통령표창 4명, 서훈 미취득 4명)이 안장되어 있다.



'단충사에서 교사 대표(심명주) 학생대표(이채정)가 대표로 헌화와 분향을 하고 있다./©서삼봉 기자

미리 연락을 받고 참배준비를 해 주신 우연식 소장님의 안내로 탐방대원들과 인솔교사들이 독립유공자 52분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단충사 앞에 도열한다. 교사대표(심명주) 1인과 학생대표(이채정 초6) 1인이 1보 앞에서 먼저 헌화와 분향을 한 후 다 함께 참배를 올렸다.



금호강이 내려다 보이는 을미의병 '임용상'의병대장 묘지에서 '어린이 대구역사탐방대'회원들이 참배하고 있다./ ©서삼봉 기자

참배행사 후 인솔교사들이 20여분 정도 독립운동사와 유적지에 대한 설명을 한 후 탐방대를 3팀으로 나누어 묘역으로 이동했다.

금호강이 내려다보이는 야산에 자리한 묘역에는 을사늑약으로 촉발된 을사의병 임용상 의병대장, 대구 3.1운동의 주역 김태련, 유일한 여성 안장자 이혜경 등 52분이 안장되어 있다. 엄숙한 마음으로 묘지에서 다 함께 참배시간을 가졌다.

학생대표로 헌화한 이채정(초6) 탐방대원은 참배소감에 대해 "긴장하며 단 앞에 섰는데, 참배하고 나오니 마음이 이상하고 뭉클했다"고 말한다. 예전에 외국에 나가 있던 우리 국민들이 태극기나 애국가를 접하고 느꼈던 마음도 이러했으리라...

점심식사 후 조양회관으로 이동했다.

대구시 동구 망우당공원내에 위치한 조양회관은 원래 중구 달성공원앞에 있던 건물이다.



'아침 해가 비치는 곳'이라는 의미의 희망을 담은 건물 동암 서상일선생이 세운 '조양회관'앞에서 박선생창 의역사교사들이 노수문 광복회대구지부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삼봉 기자

‘아침 해가 비치는 곳’이란 뜻의 조양회관은 항일민족주의자였던 동암(東庵) 서상일(徐相日) 선생(1886~1962)이 대구 지역 청년과 민중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정신적 계몽을 펼치기 위해 건설한 대구근대교육의 산실이다.

일제강점기 중국·만주 등지에서 항일민족운동을 펼치던 서상일 선생은 1922년 달성토성 앞 본인 소유 대지 500여 평에 민족자본과 기술을 모집하여 붉은 벽돌과 백두산 붉은 소나무를 사용하여 지상 2층 서구식 건물로 지었다.

해방 후 1950년 원화여자중학교가 설립되면서부터 교무실·양호실 등으로 사용되다가 1984년 망우공원으로 이전, 조양회관의 원형 그대로 복원하여 지금은 광복회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햇살문양의 조양회관 현관문 앞에 노수문 광복회 대구지부장이 기다리고 있다. 휴일인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안내하기 위해서다.

“기념식때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죠. 순국선열은 안중근의사처럼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 바친 분이고, 호국영령은 6.25때 돌아가신 국군들처럼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어린이 대구역사탐방대'가 15일(일) 1945년 광복을 기념하기 위해 45m로 세운 '항일독립기념탑'앞에서 순국선열 참배을 하고 의미를 다지고 있다./ ©서삼봉기자

올해 개관한 체험관내 영상실에서 설명을 마친 노수문지부장은 위쪽에 조성된 항일독립운동기념탑으로 안내한다.

이 탑은 대한민국이 광복된 1945년을 기리기 위해 45미터로 세워졌다. 기념탑 옆에는 역시 45미터 높이로 세워진 국기봉에 게양된 국내 최대의 대형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다 함께 항일독립선열에 대해 묵념을 마친 후 뒷편에 음각된 대구. 경북지역 독립 운동가들을 보고 조양회관으로 들어갔다. 조양회관은 100년 전 건축된 건물이지만, 현재까지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된 건축물이다. 오래된 목재와 낡은 벽돌들로 구성된 건축물이 타임머신처럼 옛 향취를 불러일으킨다.

다시 출입문으로 나와 본 가을 하늘이 새롭다. 100년 전 옛 선열들이 서대문형무소 창밖으로 본 가을 하늘과 100년 후 지금의 하늘색은 어떻게 다를까...망우당공원을 나서며.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삼봉 기자